낙산사 무산복지재단, 강추위 녹인 연탄나눔

12월 4일 '2021년 따뜻한 겨울나기' 발대식

양양지역 소외계층 259세대
총 6200만원 상당 물품 후원
9년 간 2844세대에 자비나눔

양양=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우리 같이 나이든 노인들은 젊은 사람들 도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올해는 더 춥다고 해서 은근히 걱정했는데, 잊지 않고 이렇게 연탄과 선물을 직접 전해줘 올 겨울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됐어요. 스님과 복지재단 분들께 너무 고마워서 어떻게 감사 표시를 해야 할지"

"할머니 늘 건강하시고 올겨울 따뜻하게 보내세요. 내년에도 또 올게요."

12월 4일 오후 3시 무산복지재단 대표이사 수미 스님과 손정숙 할머니(87 · 강원도 양양군 서면 장승리)는 집마당서 손을 꼭 잡고 서로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나눴다.

양양 낙산사와 무산복지재단이 매년 지역의 소외계층들에게 따뜻한 겨울나기 온정 가득한 '사랑의 연탄' 을 집집마다 현장으로 직접 배달하는 등 자비 실천에 앞장서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낙산사와 무산복지재단은 12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150여 자원봉사자들이 투입돼 양양군 6개 읍면지역의 저소득 259세대 중 184세대에 각 연탄 200장씩 총 3만 6800장과 식품꾸러미 184박스, 쌀 1840kg을 전달하고, 저소득 난방가구 72세대에는 난방유 각 153리터, 식품꾸러미 72박스, 쌀 720kg을 지원한다. 또한 노후화된 3가구 세대에는 연탄보일러도 교체해 줄 예정이다. 집계를 해보면 259가구에 연탄 3만 6800장과 난방유 1만 996리터,식품꾸러미 256박스, 쌀 2590㎏ 등의 전달과 3가구 연탄보일러 교체 등 총 6200만원 상당을 지원하게 된다.


12월 4일 양양군 서면 장승리 손정숙 할머니 집서 무산복지재단 대표 수미 스님과 자원봉사자들이 연탄 나눔 봉사를 하고 있다.

낙산사(주지 금곡정념)와 무산복지재단(대표이사 수미스님)은 지난 2012년 첫 연탄나눔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2844세대에 3억 7000여만 원 상당의 연탄과 난방유 등을 지원하며 9년째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자비행을 펼치고 있다. 이는 '지역 주민이 부처님' 이라고 생전에 강조한 故 신흥사 조실 설악 무산 대종사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지역 사회를 불국 정토로 구현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낙산사와 무산복지재단은 12월 4일 오후 2시 양양군노인복지관 앞 마당서 무산복지재단 대표이사인 수미 스님과 김진하 양양군수, 김의성 양양군의장, 자원봉사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따뜻한 겨울나기' 발대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무산복지재단 대표이사 수미 스님은 "낙산사 주지 금곡 정념스님께서는 평소 아무리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서로가 함께 나누고 돕는다면 그 어려움을 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다"며 "오늘 이 연탄 나눔 행사도 단순히 연탄 한 장 나눔의 추억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을 모아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정성을 전하는 아름다운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행사 취지를 밝혔다.

행사 막바지에는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후원을 위해 사용되는 저금통을 커다란 통에 넣는 행사도 펼쳐졌다.

행사가 끝난 뒤에는 수미 스님과 지봉 스님이 10여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양양군 서면 장승리로 이동해 독거노인 이웃들에게 연탄과 식품꾸러미, 쌀을 전달하며 이들의 겨울나기를 도왔다.

연탄을 전달받은 정정자 할머니(83)는 "코로나로 사찰도 어려운 상황일 텐데 이렇게 꾸준히 우리 같은 노인들에게 위로 물품을 보내주신 금곡스님의 한결같은 사랑에 항상 고맙고 감사할 따름"이라고 환한 미소를 지었다.

이날 자원봉사자를 자청한 김진호 씨(양양읍)도 "코로나 때문에 모든 분들이 다 어렵지만 특히 어르신들은 날씨도 춥고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계시는 시간이 많아 난방 연료인 연탄지원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오늘 이 연탄나눔은 더 뜻 깊다고 생각한다. 많이 힘들지만 어르신들께서 올 겨울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보냈으면 좋겠다"고 나눔의 의미를 되새겼다.

낙산사 무산복지재단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에는 1318 무산지역아동센터 학생들, 가족봉사단, 낙산사 신도회 등 150여 봉사자들이 한마음으로 동참해 그 의미가 더욱 각별하다. 특히 무산복지재단의 자비나눔 실천은 지역 사회 전반에 깊이 스며들어 불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 대다수가 적극 참여해 함께 마음을 전함으로써 양양지역 대표적인 자비동체 실현 나눔 행사로 자리매김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태화문화진흥원, 태화사 조명 학술대회 개최

'울산 태화사지 십이지사리탑' 주제
12월 3일 울산 롯데호텔에서 진행

(사)태화문화진흥원(원장 산옹)이 12월 3일 울산 태화사 조명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울산 태화사지 십이지사리탑' 을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통도사 불교미술사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로 (사)태화문화진흥원 개원을 기념해 열렸다.

학술대회에는 (사)태화문화진흥원 이사장 겸 백양사 주지 산옹 스님, 정토사 덕진 스님, 월봉사 보화 스님, 해남사 해원 스님, 통도사박물관장 송천 스님, 내원암 진응 스님, 성불사 혜안 스님, 정관암 대활 스님, 여여선원 효암 스님, 벽선암 혜진 스님, 석남사 일영 스님, 백련사 천도 스님 외 지역스님들과 이병호 울산불교신도회장 ,장수완 울산시부시장,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 등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태화문화진흥원이 12월 3일 개최한 학술세미나에서 참석 내빈들이 태화사 조명을 서원하고 있다.

대회는 1부 △박태원(영산대 화쟁연구소 교수)의 '신라시대 울산불교' 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2부에서는 △남무희(국민대)의 자장과 울산 태화사의 창건 △홍병화(건축사무소 상상재)의 태화사지 위치에 대한 비판적 검토 △홍대한(국립농업박물관)의 십이지사리탑의 양식과 제작시기 △한욱빈(한국건축안전센터)의 십이지사리탑의 역정과 활용방안이 발표됐다.

이날 이사장 산옹 스님은 "울산 태화사지 십이지사리탑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자는 차원에서 세미나를 준비했다. 경주에 황룡사가 있고 양산에는 통도사가 있듯이 울산에는 태화사가 있다. 자장율사가 황룡사를 중창하고 태화사를 짓고 통도사를 창건했다"며 "태화교, 태화강, 태화로, 태화교회가 있고 태화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데 정작 태화사가 없는 상황"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스님은 "태화사지와 함께 천문사지, 운흥사지, 간월산, 청량산 등 많은 이들이 지역의 문화유산을 모르고 있다. 오늘 세미나를 계기로 차츰 문화를 찾고 발굴하여 젊은 세대에 이를 알려가도록 하겠다"고 발원했다.

장수완 울산시행정부시장은 "태화사를 찾아보자는 스님의 말씀은 바로 울산지역 역사의 서사시를 만드는 과정" 이라며 "태화사 위치를 조명하여 하나씩 자료를 취합해 다시 태화사를 재건한다면 울산 문화를 새롭게 융성하게 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표충사는 12월 3일 밀양시청에서 향사 의례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명대사 향사 의례, 현대화 작업 필요"

표충사, 12월 3일 역사 전승 세미나 개최

호국성지 표충사(주지 진각)는 12월 3일 밀양시청 대강당에서 '표충사의 역사문화 전승 재조명'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호국대성 사명대사 향사의례의 역사 문화적 전승과 보존' 을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세미나에는 표충사 주지 진각 스님을 비롯해 용궁사 정무 스님, 부은사 지원 스님 외 지역스님들과 석길암 동국대 불교사회문화연구원장, 박성재 밀양시장, 황걸연 밀양의회의장, 손정태 밀양문화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진각 스님은 환영사로 "제약산 기상이 느껴지는 밀양에서 호국정신을 발전 계승시키는 계기를 만들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석길암 불교사회문화연구원장은 "사명대사의 정신을 선양하고 보존하고 기리기 위한 작업으로 이번 세미나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광주불교연합회, 2021활동보고서 발간

12월 2일에는 차상위 계층에 온수매트 긴급지원

광주불교연합회(회장 도성) 2021년 활동을 담은 보고서가 간행됐다. 코로나19로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했던 한 해를 보냈지만 광주불교연합회의 다양한 사업과 자료가 정리됐다.

전체 70쪽에 이르는 '2021광주불교연합회 활동보고서' 에는 2014년부터 활동연혁과 올해 나눔사업, 불교사업, 문화사업, 특별위원회 및 산하단체활동으로 구분하여 자세한 설명과 사진 등이 실렸다.

활동연혁에는 지난 1년간 총회와 운영위원회 회의안건 등이 수록되었다. 이어 올해 봉축행사를 자세히 소개한 불교사업, 사)빛고을나눔나무가 전담하는 나눔사업의 승보공양, 국내외 어린이청소년지원사업, 불교뱅크 사업 등 1년 동안 지역사회에서 진행한 나눔행사를 정리했다.

도성 스님은 "지역의 사암연합체가 매년 활동보고서를 작성해서 책자로 만



드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참여해 주신 대덕스님과 사부대중의 노력으로 발행하게 되었다"고 말하며, "참여해 주신 광주지역 불교대중에게 감사드린다" 고 발행 소감을 밝혔다.

한편, 광주불교연합회는 사)빛고을나눔나무(상임이사 중현)와 함께 12월 2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청장 김삼호), 3일 북구청(청장 문인)을 방문해 지역 내 차상위 계층인 독거어르신들에게 겨울철 난방 온수매트를 긴급 지원했다. 전달식에는 광주불교연합회장 도성 스님, 빛고을나눔나무 상임이사 중현 스님을 비롯해 북구지역 동현스님(신광사 주지), 해청스님(원효사 주지), 정현스님(청빈암 주지), 눌지 스님(호국관음사 주지) 등이 참여해 추운 겨울을 앞둔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마음을 전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구례군건강가정 다문화 자조 모임

구례군건강가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도운)는 최근 2021년 결혼이민자 나라별 자조모임(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을 진행했다.

자조모임은 같은 나라 이민자끼리 서로를 위로해주고 함께 성장하기 위한 자리다. 한국 정착의 어려움으로 인한 정서불안과 사회, 가정 적응에 스트레스 등을 겪고 있는 다문화 가족에게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진행한 자조모임은 1회~6회 퀼트 부엉이 열쇠고리, LED 무드등, 7회~9회 유기농 우리 가족 피자 만들기 등



총 9회에 걸쳐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진행됐다. 이와 함께 센터 상담전문가와 자녀 양육태도(PAT) 검사 통해 올바른 부모에 대한 교육도 진행됐다. 또 자녀 학업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도 진행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익산 관음사 관음보살 보호각 상량식 봉행

익산 관음사(주지 덕림)는 12월 4일 보물1842호 목조관음보살입상 보호각 상량식을 봉행했다. 상량식에는 관음사 주지 덕림 스님, 주영호 신도회장, 안귀옥 ㈜금우 회장 등 공사관계자들과 불자들이 참석했다.

덕림 스님은 인사말에서 "관음사의 보물 목조 관세음보살상 보호각에는 석가모니불을 주불로 문수, 보현, 관음, 지장보살을 협시불로 봉안할 계획이다"며 "내년 봄쯤에는 건물을 완공하고 내부공사를 거쳐 10월이면 여법한 법당을 준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포교사단 전북지역단 전진대회개최

포교사단 전북지역단(단장 김용수)이 올 한해 포교활동을 마무리하고 새해 힘찬 전진을 다짐하는 포교전진대회를 개최했다. 12월 4일 금산사 전법도량 수현사 큰 법당에서 열린 이날 포교전진대회는 금산사 회주 도영 스님, 금산사 주지 일원 스님, 포교원 사무국장 현주 스님, 금산사 포교국장 제환 스님, 윤중근 포교사단 부단장 등 내빈과 포교사들이 참석했다.

금산사 회주 도영 스님은 "배운 것만큼 전해주고 포교사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정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신광사, 소원우체통 어린이 선물 전달

광주 최초 비구니 수행도량 신광사(주지 동현)와 자비신행회(이사장 이화영)는 12월 8일 광주 서구청(청장 서대석)을 방문해 양3동에 거주하는 아동 4명의 소원우체통에 담긴 소원선물을 전달했다.

소원우체통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평소 갖고 싶어 했던 물건을 구매해 전달하는 프로그램이다.

동현 스님은 이날 100여만 원의 기금으로 통해 4명의 아이들에게 자전거, 전자사전, 패딩, 영어교재, 도너츠 음식 등을 전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